

부부의 긍정적 착각과 결혼만족도: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

이 숙 회

고 재 홍[†]

경남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결혼초기 부부 140쌍을 대상으로 부부들의 세 가지 긍정적 착각(자기고양편향, 통제착각, 비현실적 낙관주의)이 결혼만족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특히 APIM(Actor-Partner Interdependent Model)을 적용하여 부부들이 지닌 긍정적 착각이 자신의 결혼만족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기효과(자신의 어떤 측면이나 행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효과)와 배우자효과(자신의 어떤 측면이나 행동이 배우자에게 미치는 효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주요 결과로는 첫째, 따뜻함 차원의 자기고양에서는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가 모두 나타났다. 즉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이 평균적인 타인들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남편의 배우자효과가 아내의 배우자효과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남편의 통제착각이 클수록 남편 자신과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모두 높았지만, 아내의 통제착각은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셋째, 비현실적 낙관주의는 유일하게 남편의 자기효과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긍정적 착각 중 남편의 통제착각과 아내의 자기고양편향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주요어 : 긍정적 착각, 자기고양편향, 통제착각, 비현실적 낙관주의, APIM

* 본 연구는 2012년도 경남대학교 학술논문게재연구비 지원금으로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 : 고재홍,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631-70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449
E-mail : kopsy@kyungnam.ac.kr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잘 적응된 사람일수록 자신을 포함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왜곡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전통적인 심리학의 입장이다(Jourard & Landsman, 1980; Lazarus, 1983). 부부와 같은 친밀관계에서도 개인들이 지닌 긍정적 관점(예: 낙관주의)이 그들의 관계질에 영향을 준다는 최근 연구들이 있다(예: 김영남, 고재홍, 2011; 백혜영, 신희천, 2008; Assad, Donnellan, & Conger, 2007; Srivastava, McGonigal, Richards, & Butler, 2006). 비록 그들이 지닌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 정확한 지각이 아닌 착각일지라도 자신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예: Colvin & Block, 1994). 비행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자기고양편향이 작았으며(김혜영, 2002), 통제착각이나 비현실적 낙관주의와 같은 착각이 큰 청소년들이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다(고재홍, 조기영, 2003).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들에서 긍정적 착각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이나 적응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Taylor와 Brown(1988)은 많은 연구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자신과 세상을 긍정적으로 왜곡하여 지각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이유로 이런 편향을 ‘긍정적 착각(positive illusion)’이라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연구들을 근거로 부부들이 지닌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 착각도 부부들의 결혼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였다. 즉 부부들의 긍정적 착각이 부부들의 결혼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긍정적 착각의 종류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혹은 실제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지각하는 자기고양편향, 세상에서 일어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사건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통제착각,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견하는 비현실적 낙관주의가 있다. 특히 세 가지 긍정적 착각이 자신의 결혼만족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도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기고양편향

경험적인 연구에 의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을 ‘타인들’보다 여러 측면에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예: Alicke, 1985). 이와 같이 자신을 사실과 다르게 긍정적으로 지각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자기고양편향(self-enhancement bias)이라 부른다. 자신의 평가가 타인의 평가보다 실제로 높을 수도 있지만, 모두가 평균적인 타인들보다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인 일종의 착각이다. 즉 논리적으로 볼 때 특정 평가속성의 분포가 부적 편포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보다 더 우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평가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느낌을 얻기 위한 편향으로 볼 수 있다(John & Robins, 1994). 이러한 자기고양편향은 사람들이 자신을 일반적인(추상적인) 타인과 비교하는 경우에서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자신과 매우 유사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경우에서도 나타났다(Campbell, 1986; Schlenker & Miller 1977). 또한 자기 자신 이외에도 부부 혹은 부모-자식과 같이 자신과 친밀한 관계를 지닌 사람의 평가에서도 그들을 타인들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편향이 나타났다(최진희, 구민경, 최인철, 2002).

한편 이러한 자기고양편향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도 많다. 자기고양편향은 초기 아동기의 언어능력 획득, 문제해결의 발달, 및 운동 기능을 촉진시킨다고 보고되었으며(Bjorklund & Green, 1992; Stipek, 1984), 자기고양편향자는 스트레스를 덜 겪으며,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고재홍, 조기영, 2003; 김영남, 고재홍, 2011), 성취영역에서 실제로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Sternberg & Kolligan, 1990). 이는 인지적 오류가 포함된 과장된 자기 지각이 그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유익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자기고양편향이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John과 Robins(1994)의 연구에서 자신이 타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동료들로부터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장기적으로는 자존감이 하락되는 경향이 있었다. Paulhus(1998)는 자기고양편향은 자신의 심리적인 측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대인관계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한편 자기고양은 두 차원 상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이전의 인상형성이나 사람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연구들에서 대상에 대한 평가차원을 두 가지로 간주하고 있다(예: Skowronki & Carlston, 1987). 그 중 하나는 유능성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따뜻함 차원이다. 즉 평가대상이 자신이든, 타인이든 혹은 특정 집단이든 이들에 대해 평가를 할 때, 주로 그 대상이 얼마나 유능한지와 그 대상이 얼마나 따뜻한 특성을 지녔는지를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김혜숙, 고재홍, 안미영, 안상수, 이선이, 최인철, 2003). Fiske, Cuddy, Glick, 및 Xu(2002)도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유능성과 따뜻함의 두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이들 두 차원은 대인지각에 있어 주요한

특성으로 간주되어 왔다. 최근에는 대인평가나 인상형성 연구에서는 유능성 특성(예: 영리하다, 탐구적이다)과 따뜻함 특성(예: 친절하다, 따뜻하다)을 서로 구분되는 두 가지 평가차원으로 보고 있다.

통제착각

Taylor와 Brown(1988)에 따르면, 통제착각(illusion of control)은 실제로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을 남보다 자신이 더 많이(잘)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통제착각은 다른 착각들과 마찬가지로 특정 집단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들에게서도 존재한다.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 행복감,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능력, 직장에서의 창의성과 생산성,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능력 등에서 착각하는 것은 일상적인 사회적 환경 속에서 허용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크기의 착각이 존재한다.

개인의 통제력에 관한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통제감은 개인의 스트레스 적응에 도움을 준다(예: Reed, Taylor, & Kemeny, 1993; Spacapan & Thompson, 1991; Taylor, 1991). 예를 들어 Reed 등(1993)의 연구에서 병원장면에서 똑같은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이라도 통제감이 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상황에 더 잘 대처하였다. 특히 이 효과는 개인의 통제감이 실제 이상으로 과도한 경우에도 나타났다. 또한 Taylor와 Brown(1988)의 연구에 의하면 정상인보다 우울증 환자들 혹은 우울한 정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환경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현실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yers(2001)에 의하면

자기 통제감은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된 어떤 다른 요인들보다도 주관적 안녕감을 잘 예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착각들이 정신건강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자기의 미래에 대한 지각,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 보통인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여 지각하는 착각이 정신건강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aylor, 1989; Taylor & Brown, 1988). 개인이 통제감에서 약간의 왜곡을 보이는 것은 대체로 심리적 적응에 좋은 기능을 한다고 여겨지지만, 통제착각이 모든 면에서 항상 사람들에게 순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지나친 통제착각은 개인적으로 불필요한 미신적 행위를 반복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Gilovich & Douglas, 1986). 특히 우연한 사건을 초기에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후에도 그런 착각을 수정하기가 매우 어렵다(Langer, 1975).

비현실적 낙관주의

비현실적 낙관주의(unrealistic optimism)는 자신의 미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성을 말한다. 이런 경향성이 큰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에게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Clarke, Lovegrove, Williams, & Machperson, 2000).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 질병에 걸리는 일, 자동차 사고를 당하는 것,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과 같은 잠재적 위험을 가진 부정적 사건들이 자신에게 더 적게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며(Perloff & Fetzer, 1986; Peterson & de Avila, 1995), 재정적 성공, 장수하는 것 등과 같은 긍정적 사건은 자신에게 더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한다(Weinstein, 1987). 이런 경향성을 비현실적으로 보는 이유는 미래의 사건들 중 좋은 일은 타인들에게 일어날 확률의 평균치보다 자신에게 더 많이, 나쁜 일은 타인들에게 일어날 확률의 평균치보다 자신에게 더 적게 나타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약 입사시험이 2:1의 경쟁률인 경우 50%가 낙방하고 50%가 합격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낙방할 확률을 물었을 때 그 대답의 평균 확률이 50% 이하가 되었다면 이는 비현실적이며 논리적 오류이다.

비현실적 낙관주의는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데 방해가 되고(Oettingen, 1996),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 신중함, 진지함 등의 특성을 갖기 어렵게 되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Nesse & Williams, 1996). 그러나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미래에 대해 낙관주의적인 사람들일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았으며(Carver, Pozo, Harris, Noriega, Scheter, Robinson, Ketchman, Moffat, & Clark, 1993),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고(고재홍, 조기영, 2003; Sweetman, Munz, & Wheeler, 1993), 연인과의 관계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Assad et al., 2007). 또한 비현실적 낙관주의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징후와 부적 관계를 보였으며(이민규, 1993), 정신건강 지표(예: 자존감)와는 정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Taylor & Brown, 1988).

실제로 비현실적 낙관주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 사고를 갖게 하며 미래목표와 근로의욕을 북돋아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도모함으로써 행복감을 갖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긍정적 착각과 결혼만족도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결혼 생활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히려는 연구들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최근에는 부부 중 개인의 특징과 배우자의 특징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다룬 연구들(예: 이종선, 권정혜, 2002; Dehle, Larsen, & Landers, 2001)보다는 부부 자신의 특징과 배우자의 특징에 따른 결혼만족도 효과를 동시에 알아보는 연구들이 많다(예: 김시연, 서영석, 2010; 박영화, 고재홍, 2005; 서정선, 신희천, 2007; Assad et al., 2007). 또한 부부의 양자변인(dyadic variable)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다룬 연구들도 있다(예: 고재홍, 전명진, 2003; Acitelli, Douvan, & Veroff, 1993; Luo, Chen, Yue, Zang, Zhaoyang & Xu, 2008). 양자변인이란 부부간 성격유사성이나 가치관 차이 등과 같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아닌 양쪽 특징들의 조합으로 생성되는 변인들이다. 부부간 성격이나 가치관의 유사성이나 차이와 같은 양자변인이 결혼만족도에 더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박영화, 고재홍, 2005; Acitelli et al., 1993). 예를 들어 몇몇 연구들(예: 고재홍, 전명진, 2003; Acitelli et al., 1993)은 부부간 성격 혹은 결혼가치관의 유사성과 결혼만족도의 관련성을 다루었다. 최근 김영기, 한성열, 및 한민(2011)은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을 규정함에 있어 남편과 아내의 의사소통의 조합을 사용하였다.

한편 개인이 지닌 긍정적 착각이 부부관계의 질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시사한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이 행복감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다룬 연구(김영남, 고재홍, 2011), 커플을 대상으

로 파트너에 대한 외모에서의 긍정적 착각과 관계의 질을 다룬 연구(Barelds & Dijkstra, 2009) 등에서는 공통적으로 부부들이 지닌 긍정적 착각은 그 개인의 결혼생활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긍정심리학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착각일지라도 부부가 지닌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 생각은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긍정적 생각을 지닌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Carver & Scheier, 2002). 부부들에게 성공적인 결혼생활은 중요한 인생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긍정적 생각은 비록 그것이 착각일지라도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반면 부정적 생각을 지닌 사람은 결혼생활에서 난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쉽게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즉 긍정적인 생각을 지닌 사람은 부정적 생각을 지닌 사람에 비해 커플간의 갈등에서도 이를 극복하려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Solberg Nes & Segerstorm, 2006 개관참조). 실제로 Assad 등(2007)의 젊은 연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낙천적인 생각을 지닌 사람(optimist)이 커플간 갈등시 협동적 문제해결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둘째, 부부들의 긍정적 착각은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즉 자신이 필요할 때 배우자가 자신을 지원해 줄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Kaplan & Maddux, 2002). 이러한 지각된 배우자 지지는 관계의 질을 높여주며, 부부간의 의견차이 등에서 생기는 부정적 감정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김시연, 서영석, 2010; Dehle et al., 2001).

현재까지 개인이 지닌 긍정적 착각이 커플 간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다룬 많은 연구들은 주로 착각이 자신에게 미치는 효과를 다룬 것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긍정적 착각을 세 가지로 확대하여 이것들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전의 연구들(예: 박영화, 고재홍, 2005; Acitelli et al., 1993)에 따르면, 연인이나 부부와 같은 친밀한 커플의 경우에는 어느 한사람의 특성, 행동이나 생각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부부가 지닌 긍정적 착각은 종류에 따라 자신과 배우자의 행동이나 감정에도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형

부부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자료는 서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결혼 연구에서는 커플을 쌍으로 연구하기 보다는 주로 개인을 연구대상으로 다루어 왔다. 개인을 연구 단위로 사용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ANOVA나 중다 회귀 분석과 같은 통계적 방법들이 관찰치들 간의 독립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Kashy & Kenny, 2000). 여러 연구자들(예: Cook & Snyder, 2005; Kashy & Kenny, 2000; Kenny, Kashy, & Cook, 2006)은 부부와 같은 커플의 경우 전통적으로 분석단위(예: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를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변량분석과 같은 방법들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커플관계에 있는 각 구성원들로부터 얻어진 관찰치는 서로 독립적이기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부부는 사회경제적 요인, 정서적

건강, 가치관 등의 광범위한 범위에서 유사할 가능성이 높고, 공동으로 함께 외부 영향에 노출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들의 자료는 독립적이지 않다(Kenny, et al., 2006).

부부와 같이 독립적이지 않은 자료의 분석 단위를 개인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첫째, 사례수의 증가로 통계검증에서 1종 오류가 증가될 수 있다(Cook & Snyder, 2005; Kenny, 1996). 둘째, 친밀한 관계에서 대인간 측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을 잃게 된다. 예를 들어 부부들의 결혼만족도는 자신의 특징(예: 성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특징(예: 성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예: Luo et al., 2008). 셋째, 커플의 경우는 자신의 영향력과 상대방에 대한 영향력 중 어느 쪽이 더 큰지와 같은 정보는 대인간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Cook & Kenny, 2005; Cook & Snyder, 2005).

APIM(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이하 APIM)은 짝을 형성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는 쌍방간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모형으로 부부와 같이 상호의존적 자료를 검증할 때 매우 유용하다. 현재 이 모형은 성격 및 정서(Campbell, Simpson, Boldry, & Kashy, 2005), 애착(Butzer & Campbell, 2008; Campbell, Simpson, Kashy, & Rholes, 2001), 대인지각(Kenny & Acitelli, 2001), 부부갈등이나 치료(Cook & Snyder, 2005; Siffert & Schwarz, 2011), 결혼만족도(김시연, 서영석, 2010; 박영화, 고재홍, 2005; Ledermann, Bodenmann, Rudaz, & Bradbury, 2010)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APIM에 따르면, 자신의 어떤 측면이나 행동(예: 비판)이 상대방의 결과(예: 우울)에 미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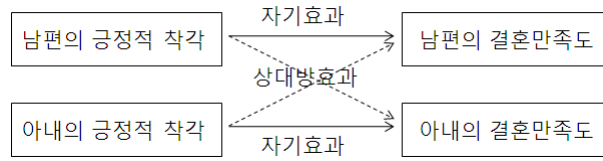


그림 1. APIM에서의 부부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효과를 상대방효과(partner effect)라고 부르며¹⁾, 자신의 어떤 측면이나 행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효과를 자기효과(actor effect)라 부른다(Kenny, 1996).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결혼만족도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특히 어떤 종류의 착각이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부부란 여러 대인관계의 유형 중에서 특별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짝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 각자의 결혼만족도는 배우자의 특성과 자신의 특성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긍정적 착각이 미치는 배우자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부부가 배우자 특성에 의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고 판단한 결혼초기 부부를 선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문제는 결혼초기의 부부를 대상으로 세 종류의 긍정적 착각이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Kenny(1996; Kashy & Kenny, 2000)가 제안한 APIM을 이용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모형을 이용하면 긍정적 착각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즉 부부의 세 종류의 긍정적 착각이 자신의

방법 및 절차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남 창원지역(창원, 마산, 진해)에 거주하는 임의표집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결혼 초기인 부부가 상대방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시기로 가정하여, 결혼 1년 이상 6년 미만 된 부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²⁾. 자료의 수집은 연구자들이 중등학교와 교회, 회사 등의 모임에서 만난 부부들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지를 배부한 다음, 받는 사람의 주소만 인쇄된 반송 봉투를 이용하여 우편으로 수집하는 방식이었다. 개인적인 신상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부 각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남편용과 부인용으로 나누어 봉투에

1) 본 논문에서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상대방효과라는 용어 대신, 배우자효과라 불렀다.

2) 신혼초기 부부의 결혼기간에 대해서는 합의된 기간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없거나 학령전 자녀만이 있는 결혼 6년 미만의 부부로 임의적으로 규정하였다.

따로 넣었고, 양면테이프로 입구를 봉할 수 있게 하였다. 반송봉투 또한 남편용과 부인용으로 따로 나누어 우편으로 취합하였다. 연구자들이 회송된 질문지에서 부부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질문지 뒷면에 연구자들만이 알 수 있는 번호를 기록해 두었다.

수집된 총 175쌍 중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자료가 누락된 경우와 무응답이 포함된 자료를 모두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40쌍의 부부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남편들의 나이는 25-43세이었으며 평균 34.84세이었다. 한편 아내들의 나이는 24-45세 이었으며 평균 32.94세 이었다. 이들의 결혼기간이 1-2년인 부부는 32.9%, 3-4년은 33.6%, 5-6년은 33.6%이었고, 평균 결혼기간은 평균 3.47년 이었다³⁾.

측정도구

결혼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이경성과 한덕웅(2001)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생활만족, 애정(passion), 및 헌신의 세 가지 하위 영역을 측정하는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경성과 한덕웅(2001)연구에서 신뢰도가 가장 우수하고 제 1요인으로 판명된 결혼생활만족 척도에 해당하는 9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정적인 방향으로 묻는 질문(예: 나는 현재의 결혼 생활에 만족한다, 결혼생활을 통해서 내가 바라던 것들이 충족되었다,

나는 현재 배우자와 결혼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4문항과 부적인 방향으로 묻는 질문(예: 나의 결혼 생활을 불행하다, 나의 결혼 생활은 권태롭다, 나는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부들에게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의 7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경성과 한덕웅(2001)의 연구에서 보고된 이 척도의 신뢰도(이하 Cronbach's α)는 .9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부부들을 대상으로 산출한 결혼만족 척도의 신뢰도는 남편의 경우 .93, 아내의 경우 .93 이었다.

자기고양편향의 측정

부부 각자의 자기고양편향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백혜영과 신희천(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와 박영화와 고재홍(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문항들 참조하여 두 차원(유능성과 따뜻함)에 해당하는 10개의 평가 항목을 선정하였다. 유능성 평가차원 문항들로는 영리하다, 유능하다, 자신감 있다, 실력 있다, 인정받고 있다 등의 5문항이었으며, 따뜻함 평가차원 문항들은 착하다, 온화하다, 정직하다, 배려심이 있다, 공손하다 등 5문항이었다.

부부들은 각 평가문항들에 대해 먼저 자신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자신이 어느 정도 유능한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 으로 구성된 7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자신이 아닌 평균적인 남편(혹은 아내)들을 동일한 평가척도 상에 평가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부들을 대상으로 산출한 유능성 평가차원에 대한 신뢰도(이하 Cronbach's α)는 남편의 경우 .89, 아내의 경우 .89 이었고 따뜻함 평가차원

3) 응답 부부들의 연령과 결혼기간을 제외한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예: 연소득)은 묻지 않았다.

에 대한 신뢰도는 남편의 경우 .82, 아내의 경우 .85 이었다.

자기고양편향의 크기는 자신에 대한 두 차원 각각의 평가에서 평균적인 남편들(혹은 아내들)에 대한 평가 값을 뺀 값이다. 이 값이 양(+)이면 자기고양, 음(-)이면 자기비하를 의미한다. 즉 이 값이 클수록 자기고양편향이 큰 것이다.

통제착각 척도

통제착각을 측정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예: Taylor, 1991)의 측정방법을 참고하여 ‘나는 노후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등과 같이 긍정적 사건들과 ‘나는 암에 걸릴 것이다’ 등과 같이 부정적 사건들을 각각 5개씩 선정하였다. 긍정적 사건은 응답자 자신이 그 결과를 얼마나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 낼 수 있는지를 물었으며, 부정적 사건은 응답자 자신이 그 결과를 얼마나 스스로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즉 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 각각에 대해 그 일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 일이 어느 정도 자신에게 (긍정적 사건의 경우) 일어나게 할 수 있는지 혹은 (부정적 사건의 경우)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부들은 그 결과를 “자신에게 일어나도록 (혹은 일어나지 않도록) 전혀 할 수 없다(1점)”에서 “분명히 자신에게 일어나도록 (혹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7점)” 상에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긍정적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나도록, 그리고 부정적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수록 통제착각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통제착각을 측정하는 문항들의 신뢰도는 남편의 경우 .86, 아내의 경우 .85 이

었다.

비현실적 낙관주의 척도

비현실적 낙관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이민규(1993)가 제작한 낙관주의 척도와 Carver, Scheier, 및 Weintraub(1989)의 삶의 방향검사를 참고하여 긍정적 사건(5개)과 부정적 사건(5개)을 선정하였다. 그런 다음 각 사건이 미래의 자신에게 발생할 가능성을 추정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나는 자녀를 모두 유명한 사람으로 키울 가능성이 ()% 라고 생각한다.”, “내가 불의의 사고로 죽을 가능성이 ()% 라고 생각한다.”와 같이 긍정적 사건과 부정적 사건을 묻고 미래의 자신에게 일어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0% - 100% 사이의 값으로 추정하도록 하였다. 긍정적 사건이 자신에게 발생할 확률을 높게 추정할수록, 부정적 사건이 자신에게 발생할 확률을 낮게 추정할수록 비현실적 낙관주의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사건의 발생확률을 역산(100-평가확률)하여 수치가 클수록 비현실적 낙관주의 점수가 큰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10개 사건에 대한 비현실적 낙관주의 신뢰도는 남편의 경우 .79, 아내의 경우 .85 이었다.

분석방법

APIM의 자료는 결합된 회귀분석(pooled regression), 다수준 분석(multilevel modeling), 및 구조방정식모형(SEM) 등으로 분석이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결합된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부부의 긍정적 착각은 혼합변인(mixed variable)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변인들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자기효과

와 배우자효과로 구분하여 산출한 다음, 단일 집단 *t* 검정으로 검증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박영화, 고재홍, 2005 참조).

만약 특정 효과(예: 배우자효과)가 유의한 경우는 한 사람의 효과를 통제 한 후, 다른 사람의 효과를 알아보는 위계적(hierarchical) 회귀 분석을 하였다. 예를 들어 부부의 통제착각이 전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배우자효과가 유의한 경우, 남편의 통제착각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아내 자신의 통제착각이 자신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 한 후, 남편의 통제착각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를 살펴 보았다. 그런 다음에 그 효과의 요약을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결 과

측정변인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한 부부들의 각 변인들의 평균과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남편은 유능성 차원($M=0.55$)과 따뜻함 차원($M=0.85$) 모두에서 자기고양적이었다, 각각 $t(139)=6.59$, $t(139)=9.94$, $p<.01$. 아내도 유능성 차원($M=0.36$)과 따뜻함 차원($M=0.47$) 모두에서 자기고양적이었다, 각각 $t(139)=3.52$, $t(139)=6.37$, $p<.01$. 그러나 남편은 유능성 차원보다는 따뜻함 차원에서 더 자기고양적이었으나, $t(139)=3.51$, $p<.01$, 아내의 자기고양편향 크기는 유능성 차원과 따뜻함 차원에서 유의

표 1. 부부의 세 가지 긍정적 착각과 결혼만족도의 평균 및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남편										
1. 남편의 유능성 자기고양	-									
2. 남편의 따뜻함 자기고양	.50**	-								
3. 남편의 통제착각	.22**	.16	-							
4. 남편의 비현실적 낙관주의	.19*	.01	.43**	-						
5. 남편의 결혼만족도	.10	.25**	.33**	.47**	-					
아내										
6. 아내의 유능성 자기고양	.10	.03	.07	-.03	-.08	-				
7. 아내의 따뜻함 자기고양	.08	.03	.01	.09	.19*	.33**	-			
8. 아내의 통제착각	.08	.03	.40**	.21*	.14	.17*	.03	-		
9. 아내의 비현실적 낙관주의	.11	-.01	.07	.19*	.07	.12	-.04	.46**	-	
10. 아내의 결혼만족도	.03	.16	.27**	.14	.54**	-.07	.18*	.16	.05	-
평균(<i>M</i>)	0.55	0.85	4.44	80.15	5.87	0.36	0.47	4.05	77.99	5.51
표준편차(<i>SD</i>)	0.99	1.01	1.11	11.59	0.85	1.20	0.86	0.97	12.94	0.89

* $p<.05$, ** $p<.01$

하게 다르지 않았다, $t(139)=1.06, ns$.

한편 부부간 긍정적 착각과 결혼만족도 크기를 비교한 결과, 유능성 차원에서의 자기고양편향은 남편($M=0.55$)과 아내($M=0.36$)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t(139)=0.12, ns$, 따뜻함 차원의 자기고양편향 크기는 남편($M=0.85$)이 아내($M=0.47$)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t(139)=3.44, p<.01$. 통제착각에서는 남편($M=4.44$)이 아내($M=4.05$)보다 높았다, $t(139)=4.09, p<.01$. 그러나 비현실적 낙관주의 점수에서는 남편($M=80.15$)과 아내($M=77.99$)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139)=1.63, ns$. 결혼만족도에서는 남편($M=5.87$)이 아내($M=5.51$)에 비해 높았다, $t(139)=5.01, p<.01$.

부부들은 세 가지 긍정적 착각과 결혼만족도에서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알아보았다. 위의 표 1에서 보듯, 유능성 차원($r=.10$)과 따뜻함 차원($r=.03$) 모두에서 부부간 자기고양편향의 유사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통제착각($r=.40$)과 비현실적 낙관주의($r=.19$)에서는 부부간 유사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부부간 결혼만족도($r=.54$)도 매우 유사하였다.

한편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자신의 따뜻함 차원의 자기고양편향($r=.25$), 자신의 통제착각($r=.47$), 및 비현실적 낙관주의($r=.33$)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아내의 긍정적 착각 중 따뜻함 차원의 자기고양편향을 제외하곤 유의

한 상관($r=-.03 \sim .16$)이 없었다.

부부의 긍정적 착각과 결혼만족도

부부 각자의 세 가지 종류의 긍정적 착각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를 요약한 것이 표 2이다.

먼저 표 2에서 보듯 유능성 차원에서의 자기고양편향에 따른 결혼만족도에서는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각각 $t(234)=0.51, t(234)=-0.85, ns$. 그러나 따뜻함 차원에서의 자기고양편향에 따른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각각 $t(223)=2.60, t(223)=2.18, ps<.05$. 이는 자신이 평균적인 남편(혹은 아내)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부부일수록,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

표 2. 부부의 세 가지 긍정적 착각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df)

긍정적 착각의 종류	자기효과(df)	배우자효과(df)
유능성 자기고양	.02(234)	-.04(234)
따뜻함 자기고양	.13*(223)	.12*(223)
통제착각	.16*(271)	.11*(271)
비현실적 낙관주의	.02*(249)	.01(249)

각 수치는 결합된 회귀계수를 의미함.

* $p<.05, ** p<.01$ (단일집단 t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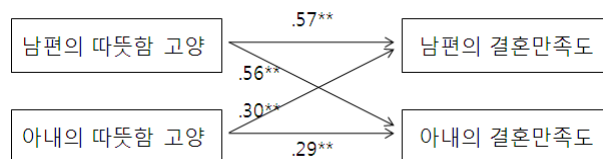


그림 2. 부부의 따뜻함 차원고양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수치는 $\beta, ** p<.01$)

하여 남편의 따뜻함 자기고양편향이 자신과 아내에게 주는 효과와 아내의 따뜻함 자기고양편향이 자신과 남편에게 주는 효과로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이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각각 $\beta=.57$, $\beta=.29$, $p<.01$. 또한 남편과 아내가 자신이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배우자의 결혼만족도도 높았다, 각각 $\beta=.56$, $\beta=.30$, $p<.01$. 그러나 전반적으로 남편의 따뜻함 자기고양편향이 아내의 따뜻함 자기고양편향보다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통제착각과 결혼만족도

부부의 통제착각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는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각각 $t(271)=3.45$, $p<.01$, $t(271)=2.30$, $p<$

.05. 이는 통제착각이 높은 부부일수록,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부의 통제착각은 배우자 결혼만족도 보다는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부부의 통제착각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남편과 아내로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보듯 자기효과에서 남편의 통제착각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지만($\beta=.33$), 아내의 통제착각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beta=.06$). 배우자효과에서도 남편의 통제착각이 클수록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높았으나($\beta=.25$), 아내의 통제착각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beta=.01$). 즉 남편의 통제착각은 자신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아내의 통제착각은 자신과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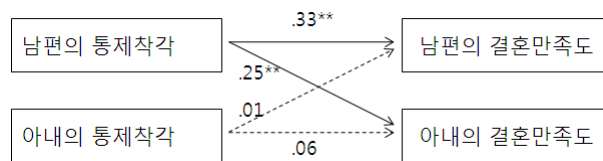


그림 3. 부부의 통제착각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수치는 β ,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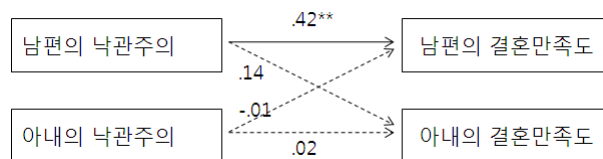


그림 4. 부부의 비현실적 낙관주의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수치는 β , ** $p<.01$)

부부의 비현실적 낙관주의와 결혼만족도

부부의 비현실적 낙관주의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는 유의하였으나, $t(249)=4.00$, $p<.05$, 배우자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t(249)=1.34$, *ns*. 자기효과가 남편의 자기효과인지 혹은 아내의 자기효과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남편과 아내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의 요약이 그림 4이다.

그림 4에서 보듯, 남편의 비현실적 낙관주의가 클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높았으나($\beta=.42$), 아내의 비현실적 낙관주의는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beta=.02$). 즉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자신의 비현실적 낙관주의가 높을수록 높지만, 아내의 비현실적 낙관주의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반면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자신과 남편의 비현실적 낙관주의 크기와는 모두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세 가지 긍정적 착각의 효과크기 비교

부부의 긍정적 착각 중 어떤 착각이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더 많은 영향을 주었는지를 비교하였다. 먼저 남편의 긍정적 착각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자기효과)와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배우자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표 3이다. 여기서 자기효과의 경우, 아내의 긍정적 착각의 효과를 모두 통제 한 후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표준화 회귀분석(standardized regression)을 하였다. 반면 배우자효과의 경우, 아내의 긍정적 착각의 효과를 모두 통제 한 후 아내의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한 표준화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3에서 보듯, 남편의 통제착각과 비현실적 낙관주의는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자기고양 편향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전체 설명량은 약 24%). 반면 남편의 긍정적 착각 중 통제착각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전체 설명량은 약 11%). 표준화 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으며, 공선성 지표(공차; tolerance)도 .65-.75로서 양호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편의 통제착각이

표 3. 남편의 긍정적 착각의 효과비교

종속변인	남편의 긍정적 착각	b	표준오차	β	t	R ²
남 편 만 족	유능성 자기고양	-.074	.078	-.086	-0.95	.24
	따뜻함 자기고양	.138	.075	.163	1.84	
	통제 착각	.148	.072	.194	2.06*	
	비현실적 낙관주의	.024	.006	.331	3.77**	
아 내 만 족	유능성 자기고양	-.107	.089	-.119	-1.21	.11
	따뜻함 자기고양	.159	.085	.180	1.87	
	통제 착각	.186	.081	.233	2.29*	
	비현실적 낙관주의	.003	.007	.037	0.39	

* $p<.05$, ** $p<.01$

표 4. 아내의 긍정적 착각의 효과비교

종속변인	아내의 긍정적 착각	<i>b</i>	표준오차	β	<i>t</i>	<i>R</i> ²
아 내 만 족	유능성 자기고양	-.083	.066	-.112	-1.26	.09
	따뜻함 자기고양	.186	.081	.233	2.29*	
	통제착각	.055	.094	.061	0.59	
	비현실적 낙관주의	.002	.007	.029	0.30	
남 편 만 족	유능성 자기고양	-.089	.059	-.123	-1.48	.07
	따뜻함 자기고양	.148	.072	.194	2.06*	
	통제착각	-.005	.083	-.005	-0.06	
	비현실적 낙관주의	.002	.006	.027	0.30	

* $p < .05$

자신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한편 아내의 긍정적 착각 중 따뜻함 차원의 자기고양편향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주었다(각각 전체 설명량 9%, 7%). 역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으며, 지표(공차)도 .64-.87로서 양호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아내의 긍정적 착각은 자신 및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였다.

결론 및 논의

긍정적 착각의 효과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자신의 긍정적 착각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는 반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룬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 중 한쪽의 긍정적 착각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부부들의 긍정적 착각의 크기를 비교해 보았으며, 부부간 상호성

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둘째, 부부들의 세 가지 긍정적 착각(자기고양편향, 통제착각, 비현실적 낙관주의)이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셋째, 세 가지 긍정적 착각 중 어떤 것이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부 측정치(예: 따뜻함 차원의 자기고양편향, 통제착각, 결혼만족도)에서 남편의 측정치가 아내의 측정치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부부의 긍정적 특성(예: 자존감, 만족도)은 남편에 비해 부인이 낮게 나타났다(예: 김미령, 2009; 박영화, 고재홍, 2005). 본 연구에서도 연령이 30대인 부인들은 자녀양육, 가사노동, 및 직장생활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결혼만족도 등에서 남편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김미령, 2009).

긍정적 착각과 결혼만족도 크기에서 부부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살펴본 결과, 통제착각과 비현실적 낙관주의, 및 결혼만족도 등에서 부부간에 유사성이 있었다. 여러 지표에서 부부간 유사성이 크다는 사실은 부부와 같은 쌍자료(dyadic data)는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APIM 분석방법을 사용함이 타당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부간의 유사성은 나이, 교육수준, 및 지능과 같은 심리적 특성(예: 허윤미, 2001) 뿐만 아니라 성격, 가치관, 결혼적응(marital adjustment) 등과 같이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나타난다(고재홍, 전명진, 2003; Acitelli et al., 1993; Assad et al., 2007; Beach, Kats, Kim, & Brody, 2003).

둘째, 세 종류의 긍정적 착각 중 따뜻함 차원의 자기고양편향과 통제착각에서는 남편의 착각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내의 세 가지 긍정적 착각은 모두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같이 부부 중 남편이 부인의 특징에 의해 받는 영향보다 부인이 남편의 특징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는 Siffert와 Schwarz(2010), 박영화와 고재홍(2005) 등 여러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이정은과 이영호(2000)의 연구에서 남편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낮았지만, 아내의 스트레스 수준은 자신과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연애 중인 커플을 대상으로 한 하운필(2003)의 연구에서도 남자에 비해 여자의 관계만족도가 상대방의 자존감 크기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부의 배우자에 대한 비대칭적 영향력은 성역할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Eagly, 1987). 이 이론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타인과 우호적 관계를 맺으려는 관심이 더 크다. 이런 이유로 남성에 비해 여성은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더 크고 타인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Abele, 2003), 남성에 비해 집단 내 타인의 영향(예: 동조)을 더 많이 받는다(Maslach, Santee, & Wade, 1987). 그러므로 남편에 비해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자신의 특징 이외에도 남편과 자식의 특징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외에도 남성중심의 부부관계가 남아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인의 남편에 대한 의존정도가 남편의 부인에 대한 의존정도에 비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긍정적 착각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남편의 세 가지 긍정적 착각 중 통제착각은 자신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한편 아내의 경우는 세 가지 긍정적 착각 중 따뜻함 차원의 자기고양편향이 자신과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고재홍과 조기영(2003)의 연구에서도 세 가지 통제착각 중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여기서는 자기효과만 연구함)가 가장 큰 것은 통제착각이었다. 이는 통제착각이 일종의 자신감이나 능력의 지각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가 지닌 긍정적 착각을 결혼만족도의 원인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인과적 관계가 그 반대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Huston(2000)의 주장에 따르면 친밀관계에서의 긍정적 경험은 개인의 특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족스런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들일수록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 그 이외에도 사람들이 일상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생

활사건들이 그 개인의 긍정적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Ariena, Stephens, & Townsend, 2004).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에서 부부들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부들의 긍정적 착각의 크기를 측정하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회적 측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긍정심리학에서는 자신이나 세상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지각, 생각, 긍정적 정서와 같은 긍정적 측면(예: 탄력성, 자존감)은 개인의 건강, 삶의 질, 장수이나 행복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개인의 여러 긍정적 관점 중에서도 자신과 세상에 대한 명백히 (논리적으로) 착각이라 할 수 있는 것들(예: 자기고양편향)의 효과를 다루었다. 즉 본 연구에서 다른 긍정적 착각을 긍정심리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긍정적 관점과 동일한 개념으로는 볼 수 없다.⁴⁾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긍정적 착각이 어떤 요인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결혼만족도와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지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긍정적 생각을 지닌 부부는 갈등시 긍정적 문제해결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박영화, 고재홍, 2005; Assad et al., 2007), 배우자가 자신의 지지자란 믿음 때문일 수도 있으며(김시연, 서영석, 2010; Srivastava et al., 2006), 그들이 선택하는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Siffert & Schwarz, 2011). 무엇보다도 세 가지 긍정적 착각과 자신의 결혼만족도간의 경로에서 매개하는 변인과 긍정적 착각이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경로에서 매개하는 변인이 다

른 종류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세 가지 긍정적 착각의 기능은 유사하지만, 이것들과 결혼만족도간에 매개하는 변인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고양은 배우자고양을 매개로 하여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반면 비현실적 낙관주의는 의사소통 방식을 매개로 하여 자신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밝히는 추후 연구는 매우 가치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부들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었고 표집방식도 임의표집이었기 때문에 표집의 대표성을 보장할 근거는 부족하다. 또한 부부에 대한 자료수집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눈덩이 표집방법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분석에 사용된 부부 사례 수(140쌍)가 충분하지 않았다. 한편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평가이외에도 또 다른 요인들(예: 수입의 크기, 학력, 자녀문제 등)이 큰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의 효과를 통제하지 못하였다.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다양한 부부요인들(예: 취미와 가치관의 유사성)을 다루지 못하였다.

이상의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지 않은 개인의 세 가지 긍정적 착각이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부부의 세 가지 긍정적 착각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배우자효과를 통해 각기 다른 매개과정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도 본 연구의 의의라 볼 수 있다.

4) 이는 한 심사자의 중요한 지적이었음을 밝혀둔다.

참고문헌

고재홍, 전명진 (2003). 부부의 유사성과 결혼 만족도간의 관계: 프로파일 유사성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1-16.

고재홍, 조기영 (2003). 청소년의 긍정적 착각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1(1), 166-181.

김미령 (2009). 연령대에 따른 여성의 결혼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 비교. 한국복지학회지, 26, 35-62.

김시연, 서영석 (2010). 스트레스, 배우자지지, 결혼만족도간 관계: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2), 189-213.

김영기, 한성열, 한민 (2011).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부부 성만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7(2), 199-218.

김영남, 고재홍 (2011). 자기고양과 배우자고양이 행복감과 부부관계의 질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167-182.

김혜숙, 고재홍, 안미영, 안상수, 이선이, 최인철 (2003).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 유능성과 따뜻함의 차원에서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121 -143.

김혜영 (2002).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기본위적인 긍정적 착각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방식 및 갈등 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백혜영, 신희천 (2008). 애정관계에서 낙관성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평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3), 1-14.

서정선, 신희천 (2007). 용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87-106.

이경성, 한덕웅 (2001). 부부관계에서 배우자 행동의 귀인이 결혼만족과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41-64.

이민규 (1993).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1), 82- 93.

이정은, 이영호 (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의사소통 패턴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531-548.

이종선, 권정혜 (2002). 부부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패턴 방식, 결혼만족도가 부부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313-330.

최진희, 구민경, 최인철 (2002). 관계고양지각이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3), 53-74.

하윤필 (2003). 커플관계만족도, 몰입 그리고 결혼할 의도에 관련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윤미 (2001). 심리적 및 신체적 특성의 동질 결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0(2), 429-448.

Abele, A. E. (2003). The dynamic of masculine-agentive and feminine-communal traits: Findings from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768-776.

Acitelli, L. K., Douvan, E., & Veroff, J. (1993). Perceptions of conflict in the first year of

- marriage: How important are similarity and understand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Relationships*, 10, 5-19.
- Alicke, M. D. (1985). Global self-evaluation as determined by the desirability and controllability of trait adjecti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621-1630.
- Assad, K. K., Donnellan, M. B., & Conger, R. D. (2007). Optimism: An enduring resource for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 285-297.
- Atienza, A. A., Stephens, M. A. P., & Townsend, A. L. (2004). Role stressors as predictors of changes in women's optimistic expectation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 471-484.
- Barelids, D. P. H. & Dijkstra, P. (2009). Positive illusions about a partner's physical attractiveness and relationship quality. *Personal Relationships*, 16, 263-283.
- Beach, S., Kats, J., Kim, S., & Brody, G. H. (2003). Prospective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on depressive symptoms in established marriages: A dyadic model.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0, 355-371.
- Bjorklund, D. F., & Green, B. L. (1992). The adaptive-nutritive immaturity. *American Psychologist*, 47, 46-54.
- Butzer, B., & Campbell, L. (2008). Adult attachment, sexual satisfact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 study of married couples. *Personal Relationships*, 15, 141-154.
- Campbell, J. D. (1986). Similarity and uniqueness: The effects of attribute type, relevance,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 esteem and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281-294.
- Campbell, L., Simpson, J. A., Boldry, J., & Kashy, D. A. (2005). Perception of conflict and support in romantic relationships: The role of attachment anxie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 510-531.
- Campbell, L., Simpson, J. A., Kashy, D. A., & Rholes, W. S. (2001). Attachment orientations, dependence, and behavior in a stressful situation: An application of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8, 821-843.
- Carver, C. S., Pozo, C., Harris, S. D., Noriega, V., Scheter, M. F., Robinson, D. S., Ketchman, A. S., Moffat, F. L., Jr., & Clark, K. C. (1993). How coping mediates the effect of optimism on distress: A study of women with early stage breast canc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375-390.
- Carver, C. S., & Scheier, M. F. (2002). Optimism.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231-243). NY: Oxford University Press.
- Carver, C. S., Scheier, M. F., & Weintraub, J. K. (1989). Assessment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267-283.
- Clark, V. A., Lovegrove, H., Williams, A., & Machperson, M. (2000). Unrealistic optimism and the health belief mode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3, 367-376.
- Colvin, C. R., & Block, J. (1994). Do positive illusions foster mental health? An examination of the Taylor and Brown

- formul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6, 3-20.
- Cook, W. I., & Kenny, D. A. (2005).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 101-109.
- Cook, W. L., & Snyder, D. K. (2005). Analyzing nonindependent outcomes in couple therapy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 133-141.
- Dehle, C., Larsen, D., & Landers, J. E. (2001). Social support in marriag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9, 307-324.
- Eagly, A. H. (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role interpreta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Fiske, S. T., Cuddy, A. J., Glick, P., & Xu, J. (2002).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878-902.
- Gilovich, T., & Douglas, C. (1986). Biased evaluations of randomly determined gambling outcom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228-241.
- Huston, T. L. (2000). The social ecology and marriage and other intimate un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298-320.
- John, O. P., & Robins, R. W. (1994). Accuracy and bias in self-perception: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enhancement and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206-219.
- Jourard, S. M., & Landsman, T. (1980). *Healthy personality: An approach from the viewpoint of humanistic psychology*(4th ed). NY: Macmillan.
- Kaplan, M., & Maddux, J. E. (2002). Goal and marital satisfaction: Perceived support for personal goals and collective efficacy for collective goal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1, 157-164.
- Kashy, D. A., & Kenny, D. A. (2000). The analysis of data from dyads and groups. In H. Reis & C. M. Judd (Eds.),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social psychology* (pp. 451-477).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nny, D. A. (1996). Models of non-independence in dyadic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Relationships*, 13, 279-294.
- Kenny, D. A., & Acitelli, L. K. (2001). Accuracy and bias in the perception of the partner in a close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439-448.
- Kenny, D. A., Kashy, D. A., & Cook, W. L. (2006). *Dyadic data analysis*. NY: Guilford Press.
- Langer, E. J. (1975). The illusion of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311-328.
- Lazarus, R. S. (1983). The costs and benefits of denial. In S. Breznitz (Ed.), *Denial of stress* (pp. 1-30). N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Ledermann, T., Bodenmann, G., Rudaz, M., & Bradbury, T. N. (2010). Stress, communication, and marital quality in couples. *Family Relations*, 59, 195-206.
- Luo, S., Chen, H., Yue, G., Zhaoyang, R., Xu, D., & Zhang, G. (2008). Predicting marital

- satisfaction from self, partner, and couple characteristics: Is it me, you, or us? *Journal of Personality*, 76, 1231-1265.
- Maslach, C., Santee, R. T., & Wade, C. (1987). Individuation, gender role, and dissent: Personality mediators of situational for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088-1093.
- Myers, D. G. (2001). *The pursuit of happiness*. 김영곤, 오강남, 이동렬, 이연섭 공역, 주머니속의 행복. 서울: 시그마프레스.
- Nesse, R. M., & Williams, G. C. (1996). *Evolution and healing: The new science of Darwinian medicine*. London: Phoenix.
- Oettingen, G. (1996). Positive fantasy and motivation. In P. M. Gollwitzer & J. A. Bargh (Eds.), *The psychology of action: Linking cognition and motivation to behavior* (pp. 236-259). NY: Guilford Press.
- Paulhus, D. L. (1998). Interpersonal and intrapsychic adaptiveness of trait self-enhancement: A mixed bless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97-1208.
- Perloff, L. S., & Fetzer, B. K. (1986). Self-other judgements and perceived vulnerability of victim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502-510.
- Peterson, C., & de Avila, M. (1995). Optimistic explanatory style and the perception of attributional process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3, 791-824.
- Reed, G. M., Talyor, S. E., & Kemeny, M. E. (1993). Perceived control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gay men with ADI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3, 791-824.
- Schlenker, B. R., & Miller, R. S. (1977). Egocentrism in groups: Self serving biases or logical information process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755-764.
- Siffert, A., & Schwarz, B. (2011). Spouses' demand and withdrawal during marital conflict in relation to their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8, 262-277.
- Skowronki, J. J., & Carlston, D. E. (1987). Social judgment and memory: The role of cue diagnosticity in negativity, positivity, and extremity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689-699.
- Solberg Nes, L. S., & Segerstorm, S. C. (2006). Dispositional optimism and coping: A meta-analytic review.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 235-251.
- Spacapan, S., & Thompson, S. C. (1991). Perceived control in vulnerable popul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47, 1-21.
- Srivastava, S., McGonigal, K. M., Richards, J. M., & Butler, E. A. (2006). Optimism in close relationship: How seeing things in a positive light make them so.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 143-153.
- Sternberg, R. J., & Kolligan, J. (1990). *Competence considered*. CT: Yale University Press.
- Stipek, D. (1984). Young children's performance expectations: Analysis or wishful thinking. In J. G. Nicholls (Ed.), *Advances in motivation and achievement: The development of achievement motivation* (pp. 33-56). Greenwich, CT: JAI Press.
- Sweetman, M. E., Munz, D. C., & Wheeler, R. J.

- (1993). Optimism hardiness and explanatory style as predictors of general well-being among attorneys. *Social Indicators Research*, 29, 153-161.
- Taylor, S. E. (1989). *Positive illusions: Creative self-deception and the healthy mind*. NY: Basic Books.
- Taylor, S. E. (1991). The asymmetrical impact of positive and negative events. *Psychological Bulletin*, 110, 67-85.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Weinstein, N. D. (1987). Unrealistic optimism about susceptibility to health problems: Conclusions from a community-wide sample.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0, 481-498.
- 1 차원고접수 : 2012. 4. 13.
심사통과접수 : 2012. 6. 17.
최종원고접수 : 2012. 6. 20.

The Effects of Married Couples' Positive Illusions on Their Marital Satisfaction

Suk-Hee Lee

Jaehong Ko

Kyungnam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ree kinds of positive illusions (self-enhancement bias, illusion of control, and unrealistic optimism)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data were collected by administering the questionnaires to 140 married couples. The influence of positive illusions on the marital satisfaction was separated into actor effect and partner effect within the APIM (Actor-Partner Interdependent Model). The actor effect means the impact a person's characteristics has on himself or herself, and the partner effect means the impact a person's characteristics has on his or her spouse.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warmer married couples consider themselves to be, the higher both their own and their spouses' marital satisfactions were. However, the partner effect of husbands was stronger than that of wives. Second, the stronger the husbands' illusion of control was, the higher both spouses' marital satisfaction was. Meanwhile, wives' illusion of control had little influence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the couples. Third, husbands' actor effect alone was significant in unrealistic optimism.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increased as their unrealistic optimism get higher. Among the three positive illusions, finally, were husbands' illusion of control and wives' self-enhancement bias that proved to have the most impact on their marital satisfaction.

Key words : *positive illusion, self-enhancement, illusion of control, unrealistic optimism, APIM*